



3면

“대화·타협·조정·중재의 전당으로”

전주매일

2022년 7월 5일 화요일 (음 6월 7일) 제305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교육, 희망의 대전환’ 힘차게 출발

서거석 전북교육감 취임

“도민들과 소통·협치로 반드시 살려 낼 것” 강조

민주·평화·환경·인권교육 실행 체계화 등 제시

“고립된 섬에 갇혀 있는 듯한 전북 교육을 소통과 협치로 반드시 살려 내겠습니다.”

서거석 교육감은 4일 오후 2시 전주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을 통해 ‘전북교육, 희망의 대전환’을 위한 힘찬 출발을 알렸다. 특히 그는 이 자리에서 전북도민과의 소통과 협치로 전북교육을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서 교육감은 이날 “교육가족은 물론 180만 전북도민이 ‘침체된 전북교육을 살려라 교육현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라 학생들의 학력을 끌어올려라’라는 막중한 임무를 주셨다”고 운을 뗀 뒤 “혼신의 노력으로 제게 맡겨진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실현장으로 희망찬 미래를 활짝 열고 교육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활기찬 학교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 교육감은 취임하기 전에 김관영 도지사를 만나 실질적이고 강력한 교육협치를 위해 교육협력추진단을 함께 만들기로 약속한 바 있다.

특히 서 교육감은 선거 기간 내내 교육·기본 학력 신장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그는 “학력이 교육의 전부는 아니지만 학력을 말하면 마치 참교육이 아닌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잘못이다”며 “학력을 키우는 것은 학생의 본분이요,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북 학생들의 학력을 전국 상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전북대 총장 재임시절부터 ‘학생중심’을 교육이념으로 실천해 온 서 교육감은 ‘인수위원회에서 현재 학생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뼈대를 만들고 있다’면서 “다음 학기에는 학생의 화가 출몰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와 함께 그는 △학부모 학교활동 참여 지원 △교사 교직원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조례 제정 △교육청 슬립화 △민주·평화·기후·생태·환경·인권 교육의 체계적인 실행 △교육 관련 단체·노조의 협력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4일 전주 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열린 서거석 전북교육감 취임식에서 서 교육감이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끝으로 서 교육감은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보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저마다 자신의 적성을 찾아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면서 “실력과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 소통과 협치의 전북교육, 도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전

북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 교육감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교육가족을 비롯해 김관영 도지사, 국회의원, 도의원 기관단체장, 가족·친지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축전을 비롯해 조희연 서울교육감·이정선 광주교육감·김대중 전남교육감·국주영 전북도의회 의장·김상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등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장은성기자

전북 아·태 마스터스 주제가 ‘The Way’

전북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주제가 공개됐다.

조직위에 따르면 주제가 제목은 ‘The Way’로, 국악 특유의 타악기 리듬과 더불어 생활체육의 활기차면서도 웅장한 느낌을 반영해 기억하기 쉽고 누구나 따라부를 수 있는 곡으로 제작됐다. 특히 생활체육 축제의 점을 고려해 승리보다는 참가자들의 화합과 우정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앨범은 한글 및 영어 각 1곡 및 헌영 혼합, MR버전 등으로 구성됐다. 작사·작곡은 변진섭의 ‘너에게로 또 다시’ 등을 작곡한 허광훈이 담당했으며, 노래는 대회 홍보대사인 ‘인동역에서’의 진성이 국악인 김주리 등과 함께 부른다.

해당 주제는 개·폐회식 등 대회 주요행사 시 부르게 될 예정이며, 그 외에도 대회에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사용된다.

이와 더불어 주제가 뮤직비디오는 선유도 월드컵경기장 전라감영 등 도내 주요 장소에서 촬영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주제가 및 뮤직비디오를 공개하고 주제가를 배경음악으로 한 통화연결음을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군산공항 군산~제주 노선 하루 왕복 4회로 정상운항

“교육, 생존전략으로 아낌없이 선투자 해야”

“교육은 우리의 생명줄이고 생존 전략입니다”

김관영 도지사는 4일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취임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전북도정의 최대 사명인 전북 경제 살리기의 해법으로 인재양성을 위한 도정과 교육행정의 협업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우리나라가 보유한 가장 훌륭하고 뛰어난 자원은 ‘사람’이다”며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하고, 가장 아낌없이 투자해야 하는 분야”라고 피력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 도교육청과 함께

김관영 지사, 서 교육감 취임 축사서

전북도정·교육행정 협업 강조

설치하기로 협약한 (가칭)전북교육협력추진단은 물론, 지역대학과도 힘을 모아 “전북을 책임질 인재를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 지사는 공식 업무를 시작한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전북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도정 역량을 집중할 ‘기업 유치’와 관련해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

의 부족 현상을 지적하며 지방정부와 지역대학 등의 역할과 권한 강화를 강조했다.

특히 김 지사는 이를 위해 “인재를 적체적소에 공급할 수 있도록 지역 대학의 화파를 탄력적으로 만들고 폐쇄·조정할 수 있는 일부 권한이 광역단체장에게 주어질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한편 김 지사와 서 교육감은 취임

전인 지난달 28일 지자체와 교육청 간 지역교육 공동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한 뒤, 상시적인 소통과 협치로 전북형 교육공동협력모델을 함께 만들기로 협약을 맺고 양 기관 간 실무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수 기자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4일 전주 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열린 서거석 전북교육감 취임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전북도지사 김관영(左)은 7일 군산공항 군산~제주 노선이 하루 왕복 4회로 정상 운항(15~20일은 3회/일)된다고 밝혔다.

당초 군산공항 군산~제주 노선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이스타 항공 정상화에 따른 제주공항 슬롯 부족으로 15일부터 하루 왕복 4회에서 왕복 2회로 감편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토부의 슬롯 재조정에 따라 7월 중 15~20일을 제외(3회/일)한 나머지 기간은 하루 왕복 4회로 정상화되었다.

도 관계자는 “8월 이후에도 기존 편수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도내 여·야 국회의원과 및 군산시·한국공항공사 등과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오는 15일 이후 운항 스케줄이 정상화되었으므로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